

- **주요 뉴스:** 미국 2월 근원 PCE 물가 발표, 높은 수준 지속 예상. 은행권 불안에도 관심
 - 미국 2개 지역은행, SVB 인수 추진. 당국은 신속하게 인수 은행 결정할 방침
 - ECB 부총재, 은행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통화정책에도 영향
 - IMF 총재, 금융안정성 관련 위험이 증가. 지속적인 은행권 감시가 필요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4%], 달러화 약세[-0.6%],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은행권 불안 다소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증시와 유사한 이유 등으로 0.9%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0.9%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의장의 물가안정 필요성 강조 등이 배경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지속 예상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0.6% 하락, 한국 CDS 상승

		3/24일	3/17일	전주말대비			3/24일	3/1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71.0	3,916.6	1.39%	국채 금리 10y	미국	3.38%	3.43%	-5bp
	유럽	440.11	436.31	0.87%		독일	2.13%	2.11%	2bp
	중국	3,265.7	3,250.5	0.46%		영국	3.28%	3.28%	-0bp
	일본	27,385	27,334	0.19%		CDS 5y	한국	44p	43bp
	한국	2,415.0	2,395.7	0.80%	위험 지표	중국	86bp	77bp	9bp
	달러지수	103.12	103.71	-0.57%		EMBI+	428	433	-5bp
환율	유로화	1.0760	1.0670	0.84%		VIX	21.74	25.51	-14.78%
	엔화	130.73	131.85	0.86%		WTI유	69.26	66.74	3.78%
	위안화	6.8673	6.8867	0.28%	원자재	구리	410.2	391.4	4.80%
	원화	1,294.3	1,302.2	0.61%		금	1,978.2	1,989.3	-0.5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2월 근원 PCE 물가 발표, 높은 수준 지속 예상. 은행권 불안에도 관심

- 3/31일 연준이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로 선호하는 2월 근원 PCE 물가가 발표될 계획. 블룸버그 등의 전망에 따르면,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할 전망(각각 4.7%→4.4%, 0.6%→0.4%). 헤드라인 PCE 물가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도 하락 예상(각각 5.4%→5.3%, 0.6%→0.2%)
-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예상되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이어질 소지. 주거비 제외 근원 PCE 서비스물가가 최근 수개월 동안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고무적 신호는 아닐 것으로 평가(Bloomberg Economics의 Anna Wong)
- 최근 은행권 불안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증가. 다만 연준 인사들은 고물가 지속 등으로 공식적인 금리인하 가능성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 이번 주 연준의 제퍼슨 및 윌러 이사, 보스턴 연은 콜린스 총재,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 등의 발언이 예정
- 한편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은행권 불안 관련 의회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 이를 통해 연준의 대책, 예금 전액 보호 여부 관련 의견을 나타낼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2개 지역은행, SVB 인수 추진. 당국은 신속하게 인수 은행 선정할 방침

- 관계자들에 따르면, Valley National Bancorp와 First Citizens BancShares 등 2개 업체가 SVB 인수 제안서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출. FDIC는 최종 인수 업체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 3/24일 기준 양 은행의 시가총액은 각각 84억달러, 47억달러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은행권 불안으로 미국은 경기침체에 근접

- 카슈카리 총재는 최근의 은행권 불안과 이로 인한 신용 위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발언. 다만 은행권 압박과 신용 위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이에 다음 회의에서의 금리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 미국 3월 3주차 은행예금, 1년래 최대폭 감소. 은행권 불안 등이 영향

- 연준 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주간 은행예금은 17.5조달러를 기록하여 전주 대비 984억달러 감소. 부문별로는 소형은행의 예금이 1200억달러 줄어든 반면 상위 25개 대형은행은 670억달러증가. 한편 같은 기간 전체 은행대출은 12.2조달러로 전주비 634억달러 증가

■ ECB 부총재, 은행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통화정책에도 영향

- 데귀도스 부총재는 은행권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에 향후 통화정책 결정도 매번의 회의 때마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질 전망
- 한편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혼란 대비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상황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동일하지 않다고 평가

■ 유로존 3월 S&P 글로벌 종합 PMI, 10개월 만에 최고치. 서비스 부문이 강세

- 3월 S&P 글로벌 종합 PMI는 54.1을 기록하여 전월(52.0) 대비 상승. 에너지 공급 개선 등으로 서비스 부문의 상승(52.7→55.6)이 강한 것으로 확인. 다만 제조업 부문은 전월비 하락(48.0→47.1). 전문가들은 큰 폭의 공급망 개선 등이 경제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IMF 총재, 금융안정성 관련 위험이 증가. 지속적인 은행권 감시가 필요

-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긴축에 따른 주요국의 성장을 둔화 등으로 세계경제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금융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지적

■ 영란은행 총재, 고물가 지속 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계획

- 베일리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한 번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 향후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 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24 현지시각 기준)

- ECB 슈나벨 이사 및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강연
- 미국 3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독일 3월 Ifo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금리상승, 부유층 고객에 집중하는 은행에도 상당한 영향 - WSJ

(Welcome to the Superprime Banking Crisis)

- '08년 금융위기는 은행이 신용이 낮은 고객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에서 비롯. 이에 이후 은행권은 대출상환 및 현금예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유층 고객을 선호. 그러나 최근 은행위기는 신용이 높은 부유층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금리상승이 장기화되자 고액 예금자의 고수익 추구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은행 예금 인출이 증가. 또한 부유층은 주택매입에 주로 *점보론(Jumbo-loan)을 사용하는데, 점보론은 정부보증이 제공되지 않아 은행이 시장에서 매도하기가 어렵고 금리상승으로 점보론 가치는 하락
- 최근 기업의 감원 및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부유층 역시 경제적 문제에 직면. 이에 부유층 고객에 집중하는 은행들도 어려움이 이어질 소지

*점보론: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정한 한계(일반적으로 \$726,200)를 초과하는 모기지 대출

■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인상 필요성 재차 부각 - 블룸버그

(Why Euro-Area Inflation is Still Racking Nerves at ECB)

-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유로존의 헤드라인 물가는 정책 입안자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했으나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core) 물가는 지속 상승. 이에 ECB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싸움은 당분간 종료되지 않을 전망
- 유로존 내 식품,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도 지속 상승하여 단기간 내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 전환은 기대난. 이를 고려 시 ECB는 오는 5월, 6월 그리고 7월에 모두 0.25%p 정책금리를 인상해야 할 가능성

■ 미국 당국의 예금자 보호 관련 모호한 입장, 시장 신뢰 약화를 초래 - WSJ

(Janet Yellen's Blurred Lines on Bank Depositors)

- 옐런 장관의 은행예금 전액 보증 관련 발언의 번복 등 당국의 엇갈린 신호가 금융시스템의 또 다른 위험으로 부상. 당국이 사례별 접근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면서 누구도 비보험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
- 도드-프랭크법의 시스템 위험 예외 조항은 규제당국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무의미해졌으며, 당국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현재 은행시스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장 신뢰와 규율이 모두 훼손

■ 미국의 은행 파산, 글로벌 성장의 위험 요소로 작용 - WSJ

(U.S. Bank Failures Pose Risk to Global Growth)

- 최근 미국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 대출을 더욱 엄격히 통제. 이는 거시적 측면에서 미국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중국, 독일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좀 더 넓은 시각에서는 미국의 대출 감소 및 대출금리 상승이 결국 글로벌 무역 및 금융시스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 한편 미국 이외의 국가들 역시 은행들이 달러화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대출 압박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이들 국가의 수입도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 '07~'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글로벌 성장률은 '08년 2.1%에 그쳤고 '09년에는 -1.3%로 역성장을 기록

■ 미국 단기 국채의 수익률 급락, 투자자의 조기 금리인하 전망을 반영 - 블룸버그

(Bond Traders Go All-In on US Recession Bets That Defy Fed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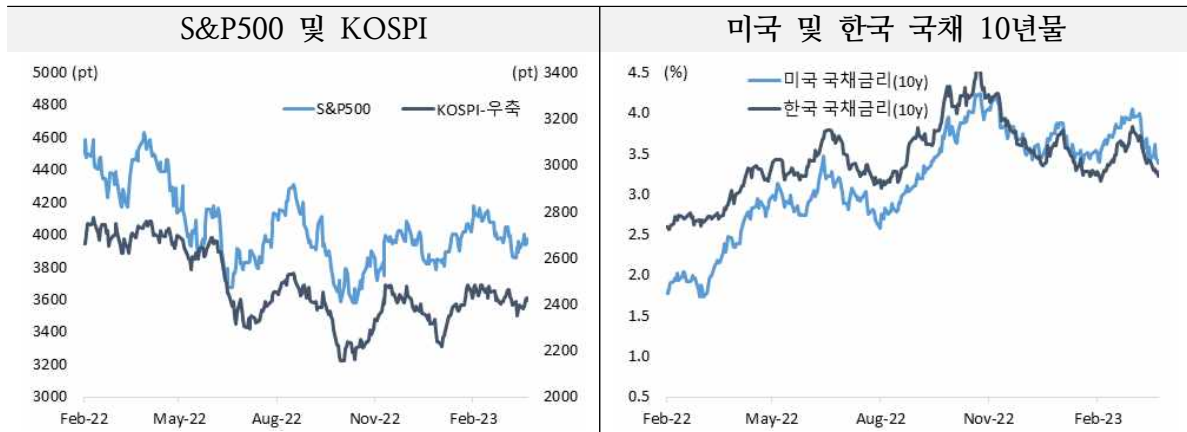
■ 미국 정부의 은행 구제,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 둔화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unstoppable rise of government rescues)

■ 유럽 경제, 공공투자 확대 위해 엄격한 예산 원칙의 개정 등이 필요 - Financial Times

(The trilemma that EU leaders must tackl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